



남학생의 간호학과 적응과정*

박 영 레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직은 여성 직업이라는 고정적 통념이 점차 신세대를 중심으로 깨져가고 성적 특성보다는 직업적 특성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하는 남학생이 늘어나면서 최근 간호학 전공을 원하는 인적 구성요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의 수가 2000년에는 455명에 불과했는데 전국 간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남학생 수가 2003년에는 938명에서 2006년에는 2021명, 2008년에는 4537명으로 보고되어(Korean Nurses Association, 2009)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동향으로 건강개념의 변화에 따른 간호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 취업이 쉽고 높은 보수가 보장된다는 자본주의적 사고,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려하고자 하는 사회적 배경 등에 따른 것이다(Evans, 1997; Meadus & Twomey, 2007; Stott, 2007).

과거 간호직을 선택한 남성들에 대한 견해는 남성 자체가 여성스럽고 동성애적이라는 것이었으나(Haywood, 1994) 최근 남자들의 간호직 유입의 증가추세는 간호직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화에 따른 권력을 추구하려는 전통적인 남성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Boughn, 2001; Doo & Kim, 2008). 실제로 남자간호사들은 일반적인 간호영역보다는 전문화된 간호영역과 신체적인 힘이 요구되는 간호영역에서 일하고 있

며 이러한 남성적인 특성은 병원, 간호대학, 지역사회 의사 결정자나 리더들이 그들의 역할을 유능하게 수행하고자 할 때 필수적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여자는 여성다워야하고 남자는 남성다워야하며 직업에 있어서도 남녀의 역할을 구별하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지배해왔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풍토에서 성에 맞는 보편적 특성을 기대하며 여기에서 일탈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이 다수인 간호직에 들어와서 다양한 경험과 이에 따라 수반되는 갖가지 불편함과 피해를 입기도 한다. 또한 남학생들이 간호학과 입학은 하였으나 여성다수 남성소수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압도적인 여학생 주도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휴학하거나 조기 입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Choi, 2002), 졸업 후에도 임상현장에서 남자간호사는 희소성으로 인하여 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우대를 받기도 했지만 간호전문직 내에서 성 고정 관념의 큰 장벽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Son, Koh, Kim, Moon, & Yi, 2003). 즉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간호 분야에서 남성들은 정보와 지지의 부족, 남자교수나 선배와 같은 역할 모델의 부족, 불평등한 실습기회와 조건, 협소한 대인관계, 남학생들의 학습요구에 따른 교육전략의 부재 등(O'Lynn, 2004; Rochelle, 2002)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실제로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일지라도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있어 적응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Evans, 2004; Simpkin, 1998; Stott, 2004; Sullivan, 2000).

주요어 : 남학생, 간호학과, 적응

* 이 논문은 2007년도 목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young0628@hanafos.com / yrpark@mcu.ac.kr)

접수일: 2009년 8월 12일 1차 수정일: 2009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6일

지금까지의 간호교육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여학생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면 남학생들의 입지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남학생들은 성역할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Choi, 2002; Lee, 2004). 간호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간호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고정 관념에 따른 사회적 인식과 여학생 위주의 간호교육환경은 남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leinman, 2004; Stott, 2004). 그러므로 간호학에서 성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남학생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며 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간호전문인력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가 되기 전에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간호학과에서 남학생들이 겪는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찍부터 남자들의 간호직 유입에 관심을 갖고 남자간호대학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특성 및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있어 이를 우리나라 환경에 인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내의 경우 남자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몇 편 찾아 볼 수 있었으나 임상실습이나 학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총체적인 이해를 돕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남학생들은 간호학과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간호학과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통해 남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더 나아가 간호 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교육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학생들의 간호학과에서의 경험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그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난 변화와 과정을 탐색하여 실체이론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다수의 여성 집단에서 생활하는 남학생들의 간호학과적응에 대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실체이론을 제시하기 위하여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였다. 근거이론방법은 연구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서 오는 이론으로 직관력을 제공하여 이해를 강화하고 행동하는데 의

미있는 지침을 제공해준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은 인과적 모형에 기반하여 어떠한 중심현상과 결과가 일어나게 된 과정과 이유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며 과정분석자체가 근거이론의 본질적인 특징이기도 하다(Dey, 1999). 근거이론 방법의 목적은 현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에 근거한 분석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론을 구축하는데 있다. 즉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실제 영역에서 보여지는 행위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개념들을 발견하고 이들 개념간의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Glaser, 1978).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관심현상인 남학생의 간호학과 적응과정을 단순한 사건에 대한 기술이나 묘사에서 나아가 그 의미체계와 사회화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하여 근거이론 방법이 적절하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하여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현재 졸업반에 해당하는 남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소속된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학과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다음 연구 참여자를 소개받았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목적과 절차, 자료보관 및 폐기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익명처리에 대한 확인과 함께 녹음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특정 질문에 대한 참여자의 답변 거부권,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구참여에 대한 철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한 후 연구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또한 협조에 대한 사례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남학생의 간호학과 적응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학교생활 및 임상실습까지 다양한 경험을 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12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는 3년제 3명, 4년제 9명이었으며 나이는 23세에서 28세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군복무 후 입학한 학생이 4명, 군복무 후 복학한 학생이 4명, 군복무 면제 학생이 1명, 졸업 후 군복무할 예정인 학생이 3명이었다. 졸업 후 희망 근무 부서는 대부분이 수술실, 응급실, 정신과, 중환자실 등과 같은 특수 부서를 원하였고, 일반병동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2명에 불과하였다.

자료 수집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참여자의 동의 하에 휴대용 녹

음기와 MP3를 사용하였다. 초기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간호학과에서 남학생으로서 경험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와 같은 도입 질문으로 시작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 간호학과를 선택할 때나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을 때 주위의 반응, 학과에서 여학생 및 남학생들과의 관계, 교수님들과의 관계,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좋은 점, 힘들거나 어려운 점, 문제발생 시 해결 및 대처방법, 졸업 후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발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1인당 면담회수는 1~2회이었고 평균 면담시간은 90분 정도이었다. 면담이 끝나고 난 후에는 녹음된 내용을 연구참여자의 생생한 언어로 필사하였다. 면담자료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전화면담이나 이메일을 이용한 추가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면담 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선호하여 자신의 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써서 메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면담장소는 학교의 연구실이나 조용한 찻집에서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최대한 주변의 방해받지 않도록 조하였다. 면담 동안 농치기 쉬운 비언어적 행위와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장노트 또는 비디오촬영을 활용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면담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도출되지 않는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분석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그리고 과정분석 등의 일련의 과정에 의해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질문하기와 지속적인 비교기법을 통하여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먼저 개방코딩을 통해 자료의 지속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범주를 도출한 다음, 축코딩을 통해 각 범주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고, 선택코딩에서는 중심현상인 핵심범주를 파악하였으며, 남학생들의 간호학과에서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적응과정을 전개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연구의 엄격성과 적합성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해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타당한가의 정도를 말한다. Morse, Hutchinson과 Penrod(1998)은 질적연구에서의 타당도는 이론을 생성하는 동안 입증의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유도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유도된 이론을 검증하는 것은 지속

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확인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묘사한 것이 맞는지 반복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 이외의 남자간호대학생에게 결과물을 보여주어 비교하고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며, 남자간호대학생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와 질적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2인으로부터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결과

남학생들의 간호학과 적응과정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핵심현상은 ‘성을 초월하여 다시 태어나기’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이 존재하는 간호학과에 들어왔으나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심각하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이질적인 성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공유하는 집단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생활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점차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 차이를 극복하여 동료로써 함께 생활하고 더 나아가 성을 초월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간호학과 학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참여자들의 ‘성을 초월하여 다시 태어나기’의 과정은 도입기, 격동기, 조정기, 적응기 등의 하위 4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Fig. 1).

도입기

● 다양한 이유로 간호학과에 들어옴

참여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간호학과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간호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없이 괜찮을 것 같다는 막연한 호기심에 의해서 아무런 생각없이 선택을 하거나 단순히 부모님의 취업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은 생각에 또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비교적 취업이 잘된다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마치 파도에 떠밀려오듯 어쩌다 보니 간호학과에 들어오게 되었다. 반면 입학 전부터 남자간호사에 대한 밝은 전망을 메스컴에서 접하거나 간호학과에 다니는 지인들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진학하게 된 경우도 있었고 가족이나 친척, 고교 선생님으로부터 간호학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접하면서 남성에게 간호는 아직까지 미개척분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레임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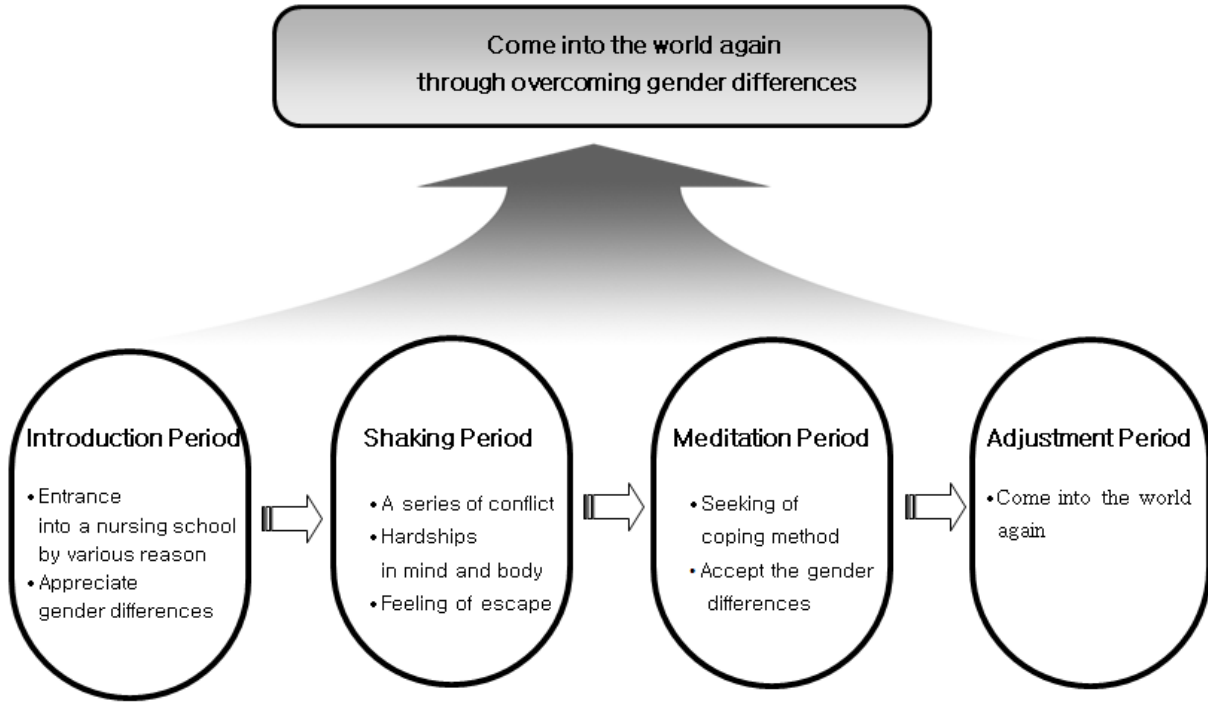


Figure 1.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분 남자간호사의 희소성 때문에 취업이 보장된다는 점이 간호학과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처음엔 별 생각없이 왔어요 군대를 좀 편하게 가려고. 의무병으로 가면 편하잖아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가보자. 그랬죠 여학생들도 많고 하나까 재밌겠다 싶어서. 또 3학년 때 선생님께서 편찮을 것 같다고 하시고 부모님도 취업이 잘 된다고 좋아하셔서..

남자간호사에 대해서 뉴스에 나온 게 있었는데 부모님도 한번 가보라고 그런 식이었고 저도 생각하기에 비전 있는 거 같고 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아보였어요 아직은 미개척분야니까. 그리고 누나가 간호학과 다녔는데 공부하고 실습하는 게 재미있어 보였어요 병원 실습 갔다와서 이런 거 했다 그러고 하면..

● 성 차이 인식

참여자들은 대학입학 전까지 남학생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지내오다가 여학생들과의 생활을 처음 접해본 경우가 많았는데 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도 하였지만 처음부터 걱정이 되기도 하였으며 특히 다수의 여성 주도적인 환경에서의 학과생활은 이들에게 더욱더 생소하게만 느껴졌다. 여학생들의 사고의 틀, 대화의 주제, 행동양식, 인

지구조 및 대인관계 양상 등이 남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며 점점 여학생들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여성 속에 소수의 남성이라는 조직의 구조에서 학과 구성원으로서 속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는 듯한 소외감과 불안감 등을 경험하였다. 결국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들어와서 간호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것보다 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공부도 그냥 하면 되는데 생활이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소외감이 든다고나 할까요 여자애들이 너무 많고 먼저 말도 안걸고. 그 또 자기들끼리만 그룹별로 잘 놀잖아요? 전 그런 거 또 참 봤어요 쉬는 시간에도 혼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남학생들끼리 나가서 괜히 화장실에 가 있고. 강의실에 있으면 웬지 뻘컘하고. 그 전에는 남학교만 다녀서 여자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격동기

● 갈등의 연속

참여자들은 간호학과를 선택할 때와는 조금 다르게 남자가 간호학과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주위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는 것을 실감하였다. 남자간호사라는 직업을 유망한 전

문직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간호는 여성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남아 있어 우리 사회에 남성과 여성의 직업에 대한 구분의식이 여전히 상당부분 많이 존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주변의 반응에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간호학과에 다니는 것에 대한 갈등이 반복되어 학과 적응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은 보장되거나 얼마나 오랫동안 간호사를 할 수 있는지, 결혼을 할 때 주변에서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 지 등 미래에 대한 확신과 불안을 반복하여 경험하였다. 또한 학과에서 주로 여학생들과 지내는 습관이나 행동이 동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느끼면서 남성성을 점점 상실하고 여학생들 속에서 주체없이 휘둘리는 듯한 느낌의 정체체성 혼란을 경험하였다.

점점 여자애들이 관심을 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심이 점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남자보다 특수한 환경 안에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딱 두 부류예요 '잘 선택했네' 하시는 분과 '야' 남자도 있야?' '남자간호사다' 그러면 기분이 좀 그래요...

나이가 40이나 50살 되어서도 과연 현장에서 계속 뿔 수 있을까 그것도 조금 불안하고 지금 병원엔 신규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어르신들은 요즘은 전문직이 좋다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어서 정말로 남자간호사 사위를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끼리 있다보면 남자가 행동하는 방식을 제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랑 있다보니까 점점 비슷하게 닮아가요 고등학교때 친구들이 가끔 '너 이상하게 됐다', '여자같아졌다', '말투가 왜그러냐' 그러는데 나 스스로 느껴지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 심신의 고난

참여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와전된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고 방대한 양의 교과목을 따라가기가 버거웠으며 성적에 민감한 여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역부족임을 경험하였다. 또한 남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여학생 위주의 교과과정, 남학생을 위한 시설부족 등 소수인 남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 그리고 임상실습 시 여자 환자들이나 분만실 실습에서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실습에 제한이 있을 때 당혹스러움과 서러움을 느꼈으며 간호학과 학생으로서의 존재감이 상실됨을 경험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없이 이루어지는 수업과 실습이 진행되는 생활 속에서 어느 순

간부터는 다시 여학생들의 눈치를 보게되는 학교생활이 고달프기도 하였고 학과 이외의 동아리 활동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 입대 시기, 군대로 인한 학문과 인간관계의 단절, 군제대후 복학시점, 복학 후 새로운 동료들과의 관계 등으로 늘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여자동료들과 함께 공유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군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은 남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적응하는데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그냥 쪼끔 친해져서 말하고 좀 같이 다닌 것 밖에 없었는데 사귀냐고 소문이 나고 말도 많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소문이 많더라구요 말도 안되는 소문이.. 또 계속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무거운 거 들고 필요할 때 있잖아요, 항상 필요시에.. 완전 PRN이예요, 그때만 남학생들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 여자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을까 공부하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만큼 힘들더라구요 간호학과에서 생활한다는 게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실습할 때도 남학생 탈의실도 안갖춰져 있고 학교 수업도 좀 그런게 좀 있어요 간호사가 여자 위주라서 남학생을 위한 시설같은 게 좀 부족하고. 산부인과 실습할 때도 환자가 의식이 있으니까 남자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남자 아니예요? 우리는 간호학과 학생이지 남자가 아니잖아요

막상 군대갈 때 고민을 많이 해요 군대를 1학년때 가야할지 2학년때 가야할지.. 아니면 나중에 졸업하고 가야할지.. 애들이랑 친해질만 할 때 군대 가면 갔다와서 보면 다 모르는 애들이고 또 나이도 어리고.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구요

● 벗어나고픈

참여자들은 마음 티놓을 곳 없는 학교생활, 끊임없이 와전된 소문,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여학생들과의 갈등, 그리고 따라가기 어려운 학업 속에서 본인이 꿈꿔왔던 낭만적인 대학생활과 고달픈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느꼈다. 이처럼 모든 것에서 강한 압박감을 느끼며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자 군 입대 시기를 서두르거나 어학공부를 위한 유학이나 휴학을 고려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다른 과로의 전과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소수의 남자들끼리 강한 결속력을 형성하였는데 같은 남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도 서로 이해하고 챙겨주게 되었으며 휴식 시간이나 수업이 없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농구나 족구 등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조금이나 힘든 현실을 떠나 있다는 위안을 받았다.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힘들어서 군대로 도망간거죠 다른 애들은 모르지만.. 휴학도 생각해 보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반대도 하고 좀 그래서.. 차라리 남학교를 다닐걸. 하는 생각도 했어요

형들이나 동생들은 그냥 정말 남자라서 행복해요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똑같은 남학생들이랑 여학생들이랑 노는게 비슷비슷하니까, 또 남학생들이랑 여학생들이랑 노는게 다르니까. 남자들이랑 만나면 솔직히 여자애들이랑 있는 것보다 편하고 좋아요 진짜로 남자들이랑 친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학교에서 의지해 나갈 사람은 우리들 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기

● 성 차이를 받아들이기

참여자들은 인간관계 양상과 상호작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었으며 여학생들을 배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같은 학문을 배우는 동료로 바라보았다. 자신들도 소수의 남자라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동등한 간호학과 학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였고 타인의 관심을 부담으로 느끼기보다는 격려와 지지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점차 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학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남성의 견해에서만 바라보던 시각을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여 여학생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여자랑 남자가 같을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간호라는 게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환자들한테도 부드럽게 대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면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실습하다 보면 힘들 일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간호사가 많이 필요할 거죠

간호학과에서 많은 여자애들을 겪어보니까 지금은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해하고 맞춰 가다보면 또 되더라고요 여학생과 남학생의 중간 입장에서 보면 둘다 맞아요 또 간호학과 공부도 워낙 어렵기도 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이지만 여자애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해야 해야 하고. 지금은 저도 친한 여자애들이 꽤 있어요 그야말로 친구죠.

● 대처방법 찾기

참여자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현실을 직시하고 당연히 겪어가야 할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여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내기도 하고 참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대처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여학생들의 행동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절대 다수의 여학생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어차피 졸업하고 임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여자에 대해서 미리 체험하고 적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학과 생활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다른 학과에 비하여 취업이 용이한 간호학과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주변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기도 하였고 다른 학과에 다니는 친구들과 비교해보면서 간호학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학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 실습을 하면서 만난 환자와 가족들이 예비 남자간호사를 믿음직스러워하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또한 소수인 남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 먼저 교수들을 찾아가 학업과 학교생활에 대한 자극을 받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준비하였다.

여자애들이랑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니까 오히려 더 잘 지내요 편하게 지내면서도 서로 조심하고. 병원에 가도 여자간호사들이 많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미리 적응하는 연습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여자애들도 친해지니까 점점 더 잘 해주고.. 남학생들이 적으니까 교수님들 관심을 많이 받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어려운거 얘기하면 들어주시고 학교생활 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여자들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할 수 있죠

가족이랑 친척들이 조금만 아파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부도 더 하게 되고 또 제가 알려줬는데 좋아지면 뭔가 아는거 같고. 실습할 때 좋은 게 환자들이랑 보호자들이 잘 해줘요 남자라서 잘해주는거.. 사람.. 좀 쉽게 안보는거 그런 것도 좋고 이번에도 실습다녀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라 하시고 남자들이 해주면 더 든든해 하시는 것 같고.

적응기

● 다시 태어나기

참여자들은 졸업 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간호사로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방인이나 아웃사이

다로 살아가기 보다는 동료들과 융화하면서 간호학과의 구성원으로서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변화를 위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남자간호학생들은 취업이 거의 보장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보장받은 미래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실습 시 선배간호사들의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참여자들로 인하여 실습병동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남자간호사의 필요성을 실감하였다. 특히 성공한 남자간호사에 대한 직, 간접적인 정보를 접하면서 미래에 대한 포부를 확고히 다졌고 훌륭한 후배 남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좀 더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참여자 모두가 간호학과에 적응하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며 오히려 간호학과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고 간호학과에 다니는 목적과 자신의 롤 모델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간호학의 특성상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성성과 강하고 대담한 남성성이 모두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여성의 성향이 강조되어온 간호학에 남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래의 리더가 될 가능성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즉 졸업 후 자신들이 간호전문직에서 앞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면서 진정한 간호학과 학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남학생들이 실습 나오면 분위기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좀 지나서인지 간호학과 다닌다고 하면 다들 잘 선택했다고들 그러시고. 간호학 책도 좀 들고 다니면서 일부러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과 친구들은 취업 때문에 계속 걱정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데 취직할 수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실습할 때 남자 수간호사를 봤는데 진짜 부러웠어요 일도 잘하고 자부심도 강하고 간호사나 의사들이랑도 잘 지내고. 멋져 보였어요 앞으로 간호계에 남자들이 많이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간호협회일도 하고 정우회 일도 하고.. 대외활동 할 때 남자들이 있으면 타 단체에서 볼 때 여자라고만 무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논 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남학생의 간호학과 적응과정은 ‘성을 초월하여 다시 태어나기’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에서 소수집단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며 특히 가부장적인 유교적 특성이 아직까지 깊게 남아있는 한국 사회에서 소수의 남성이 여성다수의 집단에 적응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참여

자들은 간호학과에서 도입기, 격동기, 조정기, 적응기를 거치면서 성 차이를 극복하여 진정한 간호학과 학생으로 다시 태어나 학과에 적응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입기는 간호학과를 선택해서 들어온 후 대학생활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호기심과 주변의 권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자 하는 시도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간호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많이 작용하였다. 이는 간호학과를 선택한 주된 이유를 남을 돌볼 수 있다는 것과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라고 보고한 Boughn (2001)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 지, 그리고 그것이 전공과 직업 선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남성의 희소성으로 인한 직업적 전망을 기대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성취로 연결지어 생각하고 간호학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남성이 소수를 차지하는 분야에 도전하면 취업이 쉽고 높은 보수가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승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Boughn, 2001; Evans, 1997; Stott, 2004). 그러나 대학생활 초기에 서로의 관심사나 행동양상 인간관계 등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성적 특성의 차이를 심하게 경험하면서 간호학과에서 학과 공부나 전반적인 대학생활보다 여학생들과 생활하는 것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여성 다수의 소수 남성 집단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본적으로 남녀가 생물학적인 성이 다르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학습된 성역할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 주도의 환경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결과(Choi, 2002; Kleinman, 2004; Sullivan, 2000)와 유사하였다. 간호학과 내에서 성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초기부터 발생하므로 학과 초기부터 학과선배들과의 만남을 권장하고 남학생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과를 선택한 동기의 확신 및 동기 성취의 의지정도에 따라 적응양상이 달라진다고 보고한 연구(Day, Field, Campbell, & Reutter, 2005; Spouse, 2000)에 근거하여 대학생활 초기에 남학생들에게 간호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주고 성취동기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좀 더 빨리 적응하고 적극적인 학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격동기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현실을 벗어나고자 탈출구를 모색하는 시기이다. 참여자들은 처음 간호학과를 선택했을 때와는 다른 주변의 반응과 앞으로 진행될

자신의 미래, 취업 후 임상적응, 재직기간 및 결혼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간호직에 평생 종사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임상에서 경험을 쌓은 후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남자간호사들이 간호직을 자신들의 평생 직장을 찾아 다른 분야로 가는 중간 기착지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한 Son 등(2003)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간호 전문직이 보다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방대한 양의 간호학과 공부와 여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남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과 실습에서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자존감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만족감이 높을 것이라는(Park, Bae, & Jung, 2002) 근거에 따라 전공교과목에서 간호에서 요구되는 남성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이를 고려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참여자들이 고민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군대 문제인데 간호학과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다. 재학 중에 군대를 가게 되면 학업과 인간관계가 중단되고 제대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졸업 후에 가게 되면 간호학적 지식이 단절된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하튼 군복무로 인한 공백은 남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저하와 경력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다행히 최근에 간호학과 남학생들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남학생들의 간호학과 적응을 돕는 촉매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학생들의 간호직 유입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조정기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힘든 학교생활에서 도피하기 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방법을 찾아가는 시기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남녀가 서로를 동료로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고 여성스럽게 변해가는 모습도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였다. 이는 남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on 등(2003)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남자간호사들은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성역할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자간호사들의 세심함, 부드러운, 꼼꼼함 등을 장점으로 인정하고 남자간호사들의 추진력, 신체적인 강함, 대담함, 역동성, 응급상황의 대처능력, 의사와 여자간호사 사이의 완충역할, 편안한 느낌 등의 장점을 상호 보완한다면 간호사에게 요구되는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간호학 자체

가 어렵긴 하지만 점점 알아갈수록 흥미를 느꼈고 다른 사람에게 건강과 관련된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 타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문임에 매력을 느꼈다. 이처럼 간호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은 학과공부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학업을 지속시키고 학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관심과 태도는 소수 학생에 대한 배려로 여겨지며 사회적 지지로 작용하였는데 교수는 상담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적응전략을 계획하고 적용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응기는 자신이 간호학과에 다녀야 하는 목적의식을 재확인하고 남자간호사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포부를 새롭게 확립해 나가는 시기이다. 실습을 통해 대상자로부터 긍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성공적인 남자간호사를 접하게 되면서 간호학과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융화하고 적극적인 학과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간호학과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중요한 적응 전략이었다. 실제로 남자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하면서 남자간호사 모델을 찾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남자교수나 남자간호사와 같은 롤모델의 부족이 남학생들의 간호학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O'Lynn, 2004; Stott, 2007). 남자간호사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으로 여기게 되므로 간호교육자와 실무자는 대중매체에서 남자간호사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묘사된 부분을 올바르게 수정해주고 임상에서 남자간호사들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과 그들의 강점 및 직업의 비전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학과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간호학과에 남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강의실의 분위기나 임상실습, 학생지도 및 기타 대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간호학과 교수들이 여성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하며 여성을 중심으로 한 지금까지의 간호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성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소수 남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생활지도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남학생들의 간호학과 적응을 최대한 도모해야 한다. 또한 대학이라는 교육현장은 학생 자신의 정체성, 삶의 방향 및 가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활동과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남자간호대학생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학과에 잘 적응하면서 간호에 대한 신념을 확립하고 장차 전문간호인으로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밑바탕을 확립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이용하여 남학생들이 간호학과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통해 남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더 나아가 간호 전문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성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참여자들은 3년제 또는 4년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현재 졸업반에 해당하는 남학생 12명이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간호학과 적응과정에서의 핵심범주는 “성을 초월하여 다시 태어나기”로 확인되었으며 적응과정은 도입기, 격동기, 조정기, 적응기 등의 하위 4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기에는 다양한 이유로 간호학과에 들어와 성의 차이를 뚜렷이 인식하였고, 격동기에는 갈등의 연속과 심신의 고난으로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했으며, 조정기에는 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응을 위한 대처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으며, 적응기에는 성을 초월하여 진정한 간호학과 학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남학생들의 간호학과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전략을 개발하여 검증할 것과 우리나라에서의 남자간호학생 및 남자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Boughn, S. (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and Health Care Perspectives*, 22(1), 14-19.
- Choi, S. J. (2002). *Male students' lived experience in the female-dominant nursing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Day, R. A., Field, P. A., Campbell, I. E., & Reutter, L. (2005). Students' evolving beliefs about nursing: from entry to graduation in a four-year baccalaureate programme. *Nurse Education Today*, 25(8), 636-643.
- Dey, I. (1999). *Grounding grounded theory: Guidelines for qualitative inquiry*. New York: Academic Press.
- Doo, H. J., & Kim, Y. S. (2008). Study o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subjectivity in their attitude toward job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2), 167-175.
- Evans, J. (1997). Men in nursing: issues of gender segregation and hidden advanta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2), 226-231.
- Evans, J. (2004). Men nurses: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7(3), 321-328.
- Glaser, B. G.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Mill Valley, California: The Sociology Press.
- Haywood, M. (1994). Male order. *Nursing Times*, 90(20), 52.
- Kleinman, C. S. (2004). Understanding and capitalizing on men's advantages in nursing.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34(2), 78-82.
- Korean Nurses Association. (2009).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News*. Retrieved November 5, 2009, from KNA Web site: <http://www.nursenews.co.kr/Article/ArticleDetailView.asp?typ=2&articleKey=1177>.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eadus, R. J., & Twomey, J. C. (2007). Men in nursing; making the right choice. *The Canadian Nurse*, 103(2), 13-16.
- Morse, J. M., Hutchinson, S. A., & Penrod, J. (1998). From theory to practice: The development of assessment guides from qualitatively derived theor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8(3), 329-340.
- O'Lynn, C. E. (2004). Gender-based barriers for male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programs: Prevalence and perceived importa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3(5), 229-236.
- Park, H. S., Bae, Y. J., & Jung, S. Y. (2002). A study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4), 621-631.
- Rochelle, R. R. (2002). *Recruiting men in nursing: Insights for the prof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zaga University, Spokane, WA.
- Simpkin, W. (1998). Gender - bashing. *Nursing Times*, 94(49), 32-33.
- Son, H. M., Koh, M. H., Kim, C. M., Moon, J. H., & Yi, M. S. (2003).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1), 17-25.
- Spouse, J. (2000). An impossible dream? Images of nursing held by pre-registration students and their effect on sustaining motivation to become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3), 730-739.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 CA: Sage.
- Stott, A. (2004). Issues in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the male student nurse: implications for retention i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s. *Nurse Education Today*, 24(2), 91-97.
- Stott, A. (2007). Exploring factors affecting attrition of male students from an undergraduate nursing course: A qualitative study. *Nurse Education Today*, 27(4), 325-332.
- Sullivan, E. J. (2000). Men in nursing: The importance of gender diversit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16(5), 253-254.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Park, Young Rye¹⁾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Method:**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with 12 male students in their final year of nursing and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Male nursing students were experienced a process of 'Come into the world again through overcoming gender differences'. The adaptation process advanced in 4 stages, 'introduction period', 'shaking period', 'meditation period', and 'adjustment period'. **Conclusion:** Specific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to aid the adaptation of male students in colleges of nursing.

Key words : Male, Nursing, Students, Adaptatio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Mokpo Catholic University, 2007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Young Rye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894-1 Sukhyun dong, Mokpo city, Geonnam 530-742, Korea

Tel: 82-61-280-5127 C.P: 82-17-253-3787 Fax: 82-61-280-5120, 5199

E-mail: young0628@hanafos.com / yrpark@mcu.ac.kr